

기술의 역학과 여공의 정동*

—19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황 지 영**

요약

본고에서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직업을 갖기 시작한 19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들을 중심으로, 여공들의 기술이 쌓이면서 변화하는 정동(affect)이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에 노동자들의 삶을 곱진하게 그려냈던 공장소설의 작가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상으로 여공들을 제시하였다. 작가들은 여공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 등을 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공들의 정동은 수치심, 슬픔, 사랑, 분노 등이다. 소녀공들은 공장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자본가나 관리자로부터 폭력적인 대우를 받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수치심을 느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노동의 고통과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슬픔으로 전화하였다. 몇몇 여공들은 공장 안의 남성 전위들과 사랑을 하면서 여성 전위로 거듭났고, 몇몇은 기술을 익혀 숙련 여공이 된 후 공장 안에 존재하는 폭력적인 요소들에 맞서 분노하였다. 이처럼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여공들의 정동은 수동성이 강한 쪽에서 능동성이 강한 쪽으로 이행하였다. 기술의 습득과 함께 정동이 변화함에 따라 여공들은 노동의 조건을 바꾸고 삶을 개선하며 혁명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갔다.

주제어: 기술, 정동, 여공, 여성노동, 공장소설, 혁명, 이행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목차

1. 여성 노동의 재편성과 '정동(affect)'의 이행
2.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녀공의 '수치심'
3. 미숙련 여공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
4. 붉은 '사랑'과 여공 전위의 탄생
5.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숙련 여공의 '분노'
6. 기술과 정동이 만드는 혁명의 길

1. 여성 노동의 재편성과 '정동(affect)'의 이행

1931년 12월 『신여성』에는 '직업여성주체의 여인단편집'이라는 주제로 특집문예란이 꾸려졌다. 최의순, 최정희, 김원주, 송계월 등이 참여한 이 특집에는 근대적 여성 직업으로 여교원, 여점원, 여하인, 여직공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들은 사적이고 비생산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불노동의 주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근대적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특집 외에도 1930년대에 창작된 소설들에는 다양한 직업여성들이 출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농촌에서 생활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공이 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기영은 『고향』(1933)에서 농촌의 평범한 소녀였던 인순이가 여공이 되고 싶어서 희준에게 취직을 부탁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최정희는 『니나의 이야기』(1931)에서 백화점 점원이었던 니나가 여공이 되는 과정을 재현하였고, 한설야의 『황혼』(1936)에는 가정교사와 사장 비서를 거친 후 여공이 되는 여순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소설들에 여공이 되는 장면이 담겨있는 이유는 당시에 이 경험이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

소설 속에서 근대 여공의 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수적 증가와 더불어 여공들이 근대성과 기술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을 곡진하게 그려냈던 공장소설의 작가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체 상으로 여공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공을 중심으로 식민지 자본주의와 열악한 노동환경, 그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러한 공장소설 속의 여공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는 역사학과 사회학 쪽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연동하면서 근대의 타자로서의 여공들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김지영은 도시의 화려함을 유지시키는 농촌 출신 여공들의 삶에 주목하였고, 서영인은 프로문학의 서사 속에서 현실의 구체성과 계급적 전망 사이를 여성이 봉합하면서 타자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서지영은 프로문학에서 ‘여공의 액티비즘’이 계급성을 넘어서 과잉 실현됨과 농촌과 도시를 오가는 여공의 비균질적 존재성이 식민지 ‘서발턴’의 이질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²⁾

두 번째는 여공의 계급적 각성 혹은 성장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박산향

1)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266면.

1930년대가 되면 공업화 과정에서 공장노동자 수는 1931년 10만여 명에서 1939년에 27만여 명 1943년에는 54만 9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조선의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원료의 이용을 목적으로 진출한 제사·면방직업 등에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일제하 경공업 위주의 발전으로 노동자의 대다수는 경공업 부문에 분포되어, 약 반수 이상이 방직 및 식료품공업 부문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경공업 부문에서 여성노동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였다.

2) 김지영, 『여공의 신체에 새겨진 ‘화폐’의 초상』, 『현대소설연구』 33권, 현대소설학회, 2007.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Vol.45, 민족문학사학회, 2011.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No.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의 문제』, 김원·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은 박화성의 『추석전야』를 분석하면서 주인공 영신의 분노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저항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배상미는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에서 최정희의 『니나 이야기(니나의 세토막 기록)』의 주인공이 여성/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점점 노동운동가로서 각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에서는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남성 노동자들이 봉건적 가족관계를 수용하고 관념적으로 계급 갈등을 이해하는 것과 달리,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자아를 찾고 생존의 조건으로 계급투쟁을 체감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³⁾

기존 연구들도 소설 속 여공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수의 작가 혹은 작품만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몇몇 작가의 작품만을 분석할 경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여공 재현의 문제를 전체적인 지형도 속에서 살피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다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19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 중에서 여공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여공들의 성장 서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정동(affect)’⁴⁾ 이론을 주요

3) 박산향,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9, 현대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Vol.58, 민족문학사학회, 2015.

_____,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8호, 현대소설학회, 2017.

4)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2016.4.; 최원, 『정동 이론 비판: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86, 문화과학, 2016.6. 참조.

진태원은 최근 국문학 연구자들이 ‘affect’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최원은 진태원의 논의를 이어받아 ‘affect’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affection’을 ‘정서’로 번역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affect’ 개념이 ‘작용하다/받다’, ‘지속/이행하다’, ‘증대/감소하다’, ‘촉진/배제하다’, ‘자극받다/모방하다/동요하다’ 등 변화를 나타내는 다양

방법론으로 사용할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정동 이론을 활용한 논문들을 생산하고 있다.⁵⁾ 정동 이론을 계열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행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본고에서도 사용할 방법은 스피노자-들뢰즈-네그리-마수미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의 절대성을 중시하는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신체의 변용' 능력이 '정서(affectus)'의 문제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고,⁶⁾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 신체 변용의 연속적인 이행을 '정동(affect)'이라고 정의하면서 '정동'이 존재의 속성이자 '되기'를 이끌어내는 원료라고 주장하였다.⁷⁾ 네그리는 정동을 이루는 역량(potentia)에 집중한 존재론을 펼치면서 권력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정동론의 가능성을 열었다.⁸⁾

한 용어들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운동성과 변화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동(情動)'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근대 여공들의 '신체적 변용'과 '정동적' 이행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affect'를 '정동'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할 것이다.

- 5) 한국문학 분야에서 '정동'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감성' 혹은 '감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정동 연구와 함께 감정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문학 중 식민지 시기 프로문학과 '정동'으로 핵심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기존 연구를 정리해 보았다.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배상비,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재현된 뼈라를 둘러싼 정동과 출판문화』, 『우리어문연구』 No.65, 우리어문학회, 2019.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Vol.55, 한국현대문학회, 2018.8, 69-107면.

최병구,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 『韓民族語文學』 No.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의 이행-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4집, 이화어문학회, 2018, 43-65면.

_____, 『일제 파시즘기의 과학자 연에서사와 정동 관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 6)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1990, 3부.

- 7) 질 들뢰즈, 『정동이란 무엇인가』, 질 들뢰즈·안토니오 네그리 외, 서창현 외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21~138면.; 정정훈, 『정동이란 전장: 3강 정동, 충동, 그리고 욕망: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정동이론』,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강의록, 2020.1.23., 7-14면.

마수미는 정동을 관계의 문제로 사유하면서 정동이 거대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턱을 넘는 능력의 변화와 거기서 기인하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⁹⁾

본고에서는 이 계열에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이론을 추가하여 정동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아메드에게 정동은 감정과 상호작용하는 신체적 과정을 포함하며, 주체가 여러 압력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재구성되는 것과 이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체가 정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이 어떤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아메드는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정동은 차이와 변위 관계에 있는 기호들 사이를 순환하면서 표면 혹은 경계를 만들고¹⁰⁾, 여러 신체들 사이를 순환하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¹¹⁾ 아메드는 이러한 모습을 혐오와 공포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한다.¹²⁾

근대 여공들을 ‘새로운 주체의 출현’과 ‘정치적인 것’의 상관성 속에서 살피는 본고에서는 ‘정동’을 감정의 차원을 끌어안으면서 그 감정에서 촉발되는 신체적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¹³⁾ 여공들에게 기술 습득은 신체의 변용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여공들의 정동은 행위를 둘러싼 능력으로서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인 시간성, 그리고 그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관계들과도 연결된다.¹⁴⁾ 그러므

8) 정정훈, 「정동이란 전장: 4강 자율주의 정동노동 이론과 페미니스트 감정자본주의연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강의를록, 2020.1.30., 7-14면.
 9)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25면.
 10) Sara Ahmed,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22,2, 2004, pp.117-120.
 11) 박미선,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 『도신인문학연구』 제8권 2호, 2016.10., 58면.
 12)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s*, New York: Routledge, 2004.
 13)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 마추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56-57면.
 14)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 외, 최성희·김지

로 대면, 관계, 부딪힘, 충돌, 접촉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정동은 촉발되는 것이자 이로 인한 이행을 함의하며¹⁵⁾¹⁶⁾,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실천¹⁷⁾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정동 개념에 기반을 두고 본고는 여성들이 근대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한 19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들을 살피면서 여공들의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정동들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여공들의 정동이 기술을 습득할수록 스스로를 비하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부정한 대상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행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여공들의 정동 변화는 그들의 노동 환경과 삶의 조건이 스스로의 의지로 바뀔 수 있음과 여공이 새 시대를 이끌 변화의 주체임을 보여줄 것이다.

2.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녀공의 ‘수치심’

1920년대가 되면 식민지 조선에도 대규모 제사공장이 출현하면서 여공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여공들은 깨끗한 기와집인 공장 기숙사에서 머물며 농촌에서 살 때처럼 굶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여학생 정도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존재였다. 그래서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고 지원자들끼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취업에 성공한다면 여공이 되어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2015, 14-55면.

15) 권명아, 『식민지 내부의 감각의 분할과 정념의 공동체 : 병리학에서 정념-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론』, 『석당논총』 5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19-20면.

16) 황지영(2018), 앞의 논문, 46-47면.

17) 박현선,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86호, 문화과학, 2016.6., 64면.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조선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형편없는 식사 등으로 인해서 여공이 되려고 하는 여성의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여공들의 근속 연수도 일본의 여공들에 비해 짧아졌다. 여공들의 산업재해는 80%를 넘었고, 임금은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 남성 직공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소녀공들은 성인 여공들이 받는 임금의 삼분의 이 정도만을 받았다.¹⁸⁾

여공들이 처해 있었던 척박한 상황은 소설 속에서 공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장감 있게 재현되었다. 1931년에 발표된 유진오의 『여직공』에는 더운 여름에 제사공장이 어떤 모습인지가 그려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하얀 광채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 안의 온도는 높게 설정되어 있었고 바람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기와 습기, 여공들의 땀내와 고치 삼는 냄새가 합쳐진 이곳은 ‘산지옥’을 방불케 했다.

첫여름 공장 안은 새벽부터 끓는 가마 속같이 더웠다.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비단실은 조선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실어내가는 것이다. 하얀 광채가 나게 하느라고 특별히 공장 안의 온도를 높게 한다. 사시를 통해 일백이십 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 공장은 따라서 삼복 중이라도 절대로 바깥바람을 들이지 아니한다. 삼백 명 젊은 여자의 땀내와 고치 삼는 냄새가 끈적끈적하게 공장 안에서 용두리쳤다. 지옥이다. 산지옥이다.¹⁹⁾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공의 힘겨운 노동 조건을 알고 있음에도 어린 소녀들이 여공이 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였

18)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 1920년대 ~ 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 201』, Vol.9 No.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39-56면.

19) 유진오, 『여직공』, 『조선일보』, 1931.1.2.~22.;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 (1930-1932)』, 보고사, 199b, 152-153면.

다. 또한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할 바에는 여공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인택의 『적은 女工』에서 지식인 서술자인 ‘나’는 어린 소녀들이 여공이 되려고 하는 이유로 “허영심과 호기심”을 든다.²⁰⁾ 그는 동네의 아이들이 여공이 되려고 할 때 열심히 말렸지만 부모들의 무지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고 싶다는 소녀들의 욕망을 끝내 막지는 못한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든 도시를 동경해서든 여공이 된 후에 이들은 공장에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였다. 숙련이 되면 견딜 만하지만 숙련이 되기 전까지 하루 종일 꼬부리고 앉아서 실을 켜고, 꿨는 물에 손을 넣어 고치를 건지고, 실을 잇는 작업은 몹시 까다로운 일이었다.²¹⁾ 그래서 “철모르는 열 두서너 살 되는” 소녀공들은 “어린 몸으로 더위와 싸우다가 참지를 못하고 정신없이 졸도”²²⁾를 하거나, 집으로 “일하기가 괴롭고 엄마를 보고 싶어 밤낮 울음으로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를 부쳤다.

소녀공들은 공장 안에서 식민지인으로서 민족적 차별을, 노동자로서 계급적 차별을, 여성으로서 성적 차별을, 연소자로서 연령적 차별을, 보조인력으로서 업무적 차별을 받으면서 이 모든 중층적 억압을 견뎌야 하는 최하위 계층이었다. 특히 소녀공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을 공장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관리자들이었다. 공장 관리자들의 언어폭력과 성폭력 등은 어린 여공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하루에 십 전도 되지 못하는 노동비” 즉 “한 달에 이 원 오십 전 내지 삼 원을 받”²³⁾으며 견디기에는 이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공격성을 지니지 못한 채 항시적인 폭력에 노출된 소녀공들은 자신이 당하는 폭력의 원인을 자신 안에

20) 이와 유사한 모습은 채만식의 『보리방아』, 『동화』, 『병이 낫거든』에도 제시된다.

21) 이상경 편, 『고향』, 문학과지성사, 2005, 104면.

22) 이적효, 『총동원』, 『비판』, 1931.8.;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218면.

23) 한인택, 『적은 여공(女工)』, 『비판』, 1932.4.; 안승현 편(1995b), 위의 책, 294면.

서 찾으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정동, 즉 ‘수치심’을 느꼈다.

남에게 저서 임금이 깎일까봐 “마음을 줄이고 초초”해 했던 소녀공 인순은 실제로 임금이 깎이는 순간이 온다면 자신이 공장 안에서 남만 못하다는 사실과 공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기술을 지니지 못한 대부분의 소녀공들은 노동을 할 때와 노동을 하지 않을 때에 적합한 신체적 변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타인의 평가에서 기인하는 수치심 속에 갇힌다. 수치심은 “사회에서 순응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인지한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감정을 전제로 하는 수치심은 순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²⁴⁾ 정동이다.

하지만 때때로 수치심은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소녀공』의 신경은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못 가게 되자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돈 없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것”²⁵⁾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신경이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여학생’으로 상상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여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을 때, 즉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유발되는²⁶⁾ 정동이다. 여공이 되기 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던 신경은 자신을 객관화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동화된 채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여공이 된 이후에는 사회적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수치심을 발판 삼아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수치심이 양가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유는 “인간다움의 징표”라는 속성

24) J. 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183면.

25) 박영준, 『소녀공』, 『전선』, 1932.5.; 안승현 편(1995b), 위의 책, 351면.

26) 김찬호(2015), 앞의 책, 52, 64면.

과 “존재를 부정하는 파괴적인”²⁷⁾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수치심을 매개로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기 파괴적이 된다. 『여직공』의 옥순이는 일본인 공장 감독에게 매수되어 여공 중에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고자질했지만, 감독에게 겁탈을 당한 후 “고자질한 부끄러운 마음”을 다른 여공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몫 맡아보리라는 새로운 결심”²⁸⁾으로 바뀌버린다. 감독은 옥순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했지만 옥순은 수치심 속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수치의 기억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정리하면 1930년대 공장소설에서 재현된 소녀공들의 수치심은 소녀공들을 표현하는 기호들 사이를 순환하며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하였다. 첫째 소녀공들은 공장 안에서 관리자의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직면했을 때 자책감을 동반한 수치심을 느낀다. 둘째 소녀공들은 수치심을 통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셋째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수치심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가치를 회복할 때 여공들은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어린 여공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문턱에 수치심이라는 정동이 자리함을 뜻한다.

3. 미숙련 여공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

1930년대가 되면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업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착취가 시작되었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발전소를 시작으로 통신,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기간산업에 투자가 이루어

27)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5, 47면.

28) 유진오(1931),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176면.

쳤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비료공장을 중심으로 화학산업을 발전 시켰다.²⁹⁾ 이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제국이자 자본가의 지위를 유지했고 노동 현장은 이 구도에 ‘기술’이라는 변수가 포함된 채 재편되었다. 다시 말해 노동 현장에서는 기술이 중점적인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술을 지닌 자들과 기술을 지니지 못한 자들이 위계구조 속에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소녀공이 미숙련 여공이었던 만큼 이들은 기술을 지니지 못한 자로서 위계구조의 최하층부에 놓여 있었다.

근대적 노동의 후발주자였던 여공들은 초기에는 기술이 없는 상태로 노동 현장에서 분투하였다. 기술 자체가 남성적 행위와 언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이 과정에서 소외될 확률이 높았다. 공장 안에서 사장, 지배인, 감독, 감시, 과장, 공장장 등의 직함을 지닌 남성 관리자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능청스레 웃으며 여공들 사이를 오갔고,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었던 여공들은 관리자 남성이라면 “짱그린 자나 웃는 자나 가까이 오는 것”³⁰⁾을 싫어하였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처럼 남성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계급에서 성 불평등과 기술의 문제가 연결되었다. 남성의 기술 독점은 여성이 숙련화 되는 것을 막아 성별 분업을 심화시켰고, 기술 분야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가부장적인 지배의 방식과 맞물려 지속되었다.³¹⁾

게다가 당시 민법이 여성을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여성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공들의 고용계약은 여공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나 친척이 회사와 체결하는 형태였다. 노동계약의 과정에서도 여공의 자립성은 무시된 것이다.³²⁾ 『적은

29) 김우필·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 담론에 나타난 근대성·인문주의 대 과학주의 합리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259-260면.

30) 유진오(1931),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156면.

31) 주디 와이즈먼, 박진희·이현숙 역, 『테크노페미니즘 :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궁리출판, 2009, 1장 기술의 남성적 설계

32) 이호연(2005), 앞의 글, 208면.

女工』에서 금섬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공장으로 금섬이를 데리러 간 ‘나가’가 공장 직원들과 싸움을 하고도 금섬을 공장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금섬이나 금섬 어머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노동의 주체이지도 못하고, 계약의 주체이지도 못한 미숙련 여공들은 공장 안에서 통제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노래’를 매개로 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 연인에 대한 걱정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본래 기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노래는 가사의 내용과 곡조에 따라 권장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였다. 농업 노동에서 협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래가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공장은 인간이 기계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는 노래가 기계와 여공의 리듬을 이어줄 때는 권장되고, 생산 장려라는 공장의 목표에 어긋난 정서를 표출할 때는 금지되었다.

그래서 공장의 목표와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여공들은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구슬픔과 애달픔, 즉 슬픔의 정조를 띤 노래를 혼자서 읊조렸다.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정동은 사람, 물건, 지위, 가치 등 소중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이다. 지금 곁에 없는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으로 가시화되는 이유 역시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상실감을 동반하는 슬픔은 주로 외부의 원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본인이 슬픔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활력을 약화시키고 가슴이 쓰러지거나 미어지거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은 약화시켜야 하는 것 혹은 견뎌야 하는 것으로 치부된다.³³⁾

얼레 얼레 잘 돌아라
핑핑 잘 돌아라
네가 잘 돌면 상금
네가 못 돌면 벌금

겨우 이렇게 입 속으로 부른 선비는 눈등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괴롭을 잊기 위한 이 노래! 일에 재미를 붙이기 위한 이 노래도 선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³⁴⁾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에는 여공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부르는 “얼레 얼레 잘 돌아라/ 핑핑 잘 돌아라/ 네가 잘 돌면 상금/ 네가 못 돌면 벌금”이라는 가사의 노래가 나온다. 이 노래는 여공들을 규율화하고 여공들의 노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고된 노동으로 인해 몸이 아픈 여공들에게 이 노래의 곡조는 눈물과 함께 슬픔의 정동을 불러일으킨다. 노래에 슬픔의 정동이 담기면 노래 가사에 담긴 자본가들의 의도는 희석되고, 여공들은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활력을 잃는다.

이북명의 『여공』(1933)은 제품창고 안에서 여공인 경순이가 “공장의 기계는 우리 ×로 돌고/ 수리조합 붓들은 ×물로 찬다”³⁵⁾라는 가사의 ‘아리랑 노래’를 모기 같은 소리로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경순의 구슬픈 노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공장 측과 대립하는 정희의 내면에 가닿는다. 정희는 연인인 창수가 ‘화학독서회’를 조직하려다가 선동죄로 감옥에 간 후에, 슬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창수를 그리워한다. 홀로 남겨진 슬픔과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혈을 착취당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만들

33)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4, 145-153면.

34)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2002, 408면.

35) 이북명, 『여공』, 『신계단』 6호, 1933.3.;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3 : 일제 강점기 (1933-1938)』, 보고사, 1995c, 40면.

어지는 이 노래의 정동은 공장주와 관리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자아낸다.

이처럼 슬픔의 정동을 담은 노래는 공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장 안을 장악한 기계의 리듬 대신에 인간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공장 노동에 대해 비판적인 가사를 담은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려는 직공들과 노래를 금지시키려는 관리자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한다. 이 대립을 뚫고 “공장에서 보는 달은/ 왜 저리도 파랗까/ 기름과 먼지에 x문힌/ 여직공의 얼굴일세” “xxx의 배때기는/ 왜 저리두 부를가/ 아마도 우리들 x가/ 그 속안에 가득찼네”³⁶⁾와 같은 노래를 부르려는 여공들은 본인이 느끼는 슬픔이 자신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며 소모하는 자본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대 여공들이 소설 속에서 재현될 때 슬픔 정동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첫째 슬픔은 여공들이 당하는 노동의 고통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슬픔은 곧 아픔이기 때문에 여공들이 슬픔을 동반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슬픔은 슬픔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잠시 떠나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슬픔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슬픔은 여공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직시하게 만들어 여공들에게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여공들의 슬픔은 공장 안의 고착화된 폭력의 구조를 폭로하면서 도와달라는 사회적 신호로서 기능한다. 이때 슬픔은 공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고, 공장 안에 있는 여공들이 일체감을 느끼게 돕는다.³⁷⁾

36) 김남천,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1934.1.25.~2.2.; 안승현 편(1995c), 위의 책, 90면.

37) 최현석(2014), 앞의 책, 154-156면.

4. 붉은 '사랑'과 여공 전위의 탄생

1930년대 공장소설에서 투쟁을 이끄는 여공은 주로 숙련 여공이면서 남성 전위 노동자와 연인 관계에 있는 여공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남성 전위와의 사랑을 통해서 여성 전위로서 성장해 나간다. 남성 전위들은 책과 이론을 매개로 연인인 여공에게 계급모순에 대해 알려주고 계급투쟁에 대한 열정도 심어준다. 소설 속에 그려진 이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헤어지더라도 투쟁만은 이어간다는 형태, 즉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³⁸⁾의 형태로 정형화된다.

『인간문제』의 첫째는 제사공장에 뼈라를 몰래 넣으면서 선비가 이 뼈라를 보고 “과거와 같이 온순하고 예쁘기만 한 선비가 되지 말고 한 보 나가서 씩씩하고도 굳센 여자가 되었으면”³⁹⁾ 하고 바란다. 남성 전위들은 첫째와 같은 마음으로 여공인 연인을 바라본다. 반면에 “자기의 굳센 생각이 서지 않”은 여공들은 처음에는 “사랑을 가장 큰 인생관의 전부”⁴⁰⁾라고 여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은 ‘붉은색’이 첨가된 ‘투쟁을 동반한 사랑’으로 전이되고 여공들은 새로운 전위로서 성장해 나간다.

창수도 재빠르게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쓰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정희의 옆을 쿡 찢었다. 정희는 잠시 그 낙서를 보더니,

“그럼 내가 회답을 쓸게 눈을 감으세요.”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빙그레 웃는다.

창수는 한 삼 분간을 눈을 감았다 떴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쓰였다. 각 직장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들 남녀직공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일이다. 말하자

38) 콜론타이, 정호영 역, 『붉은 사랑』, 노사과연, 2013.

39) 이상경 편(2002), 앞의 책, 373면.

40) 박영준(1932),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356면.

면 지금 봉식이와 나벌 사이도 그러하다.

그 후 며칠 만에 창수는 정희에게 우리는 반드시 ‘동지로서의 연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⁴¹⁾

위의 인용문은 『여공』의 주인공인 정희와 그의 연인인 창수가 자신들의 사랑을 ‘동지로서의 연애’로 규정하는 장면이다. 창수는 ‘붉은 사랑’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기시 야마지(귀사산치(貴司山治))라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소설가가 쓴 ‘꼬스도푸(ゴー・ストップ)’의 영자(英子)를 예로 들고⁴²⁾ 정희는 창수의 이야기를 듣고 ‘붉은 사랑’의 가치를 수긍한다. 『인간문제』의 첫째가 ‘빠라’를 사용해서 붉은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여공』의 창수는 ‘소설’ 속 인물을 이용해서 자신과 정희의 붉은 사랑에 설득력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대훈은 『호반』(1937)에 고학으로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원삼이가 여공이 된 보통학교 동창이자 과거의 연인이었던 성심에게 책들을 빌려주고, 상품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을 삽입한다. 원삼이가 성심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핵심은 “원료+임금+리윤=상품”이라는 기본등식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값싼 원료+값싼 임금+많은 리윤=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값싼 원료+조금 비싼 임금+조금 냉기는 리윤=상품”⁴³⁾이 되도록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삼은 임금과 이윤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여 성심의 식견을 넓혀주고 이 둘의 사랑은 투쟁의지와 더불어 차츰 강해진다.

남성 전위 노동자와의 사랑을 통해 계급의 문제와 투쟁의 원리를 깨달은 여공들은 자신들을 각성시킨 연인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붉은 사랑’을 표방한 몇몇 소설의 결말은 남성 노동자가

41) 이복명(1933), 앞의 글; 안승현 편(1995c), 앞의 책, 40면.

42) 이복명(1933), 위의 글; 안승현 편(1995c), 위의 책, 44면.

43) 함대훈, 『호반』, 『조광』, 1937.1.; 안승현 편(1995c), 앞의 책, 470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의 연인인 여공들은 낙망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속해 나간다. 박영준의 『소녀공』(1932), 이복명의 『여공』(1933), 함대훈의 『호반』(1937)의 주인공들은 연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연인의 행동을 자랑스러워 하며 자신도 투쟁을 이어간다. 전위로 성장한 여공들에게는 연인과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붉은 사랑이 보다 깊어진 상태는 부부가 함께 전위가 되어 계급투쟁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으로도 그려진다. 『여직공』의 옥순은 공장 감독에게 여공들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왕십리에 있는 근주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여공들과 함께 『우리는 왜 가난한가』를 강독하는 근주의 남편인 강훈을 만난다. 그는 “허푸수수한 머리, 헬숙한 얼굴 그러나 기름때에 새카맣게 더러운 샤쓰 밑에는 노동에 굶어진 뼈가 내비치”⁴⁴⁾는 사나이였다. 그는 여공들이 책의 한 대목을 읽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서 그들의 이해를 도왔다. 근주와 강훈이 보여주는 동반자적 관계는 ‘붉은 연애’가 부부 관계로 발전한 표본이며, 이 부부의 역할은 여공들이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처럼 여공들이 등장하는 공장소설 속에 재현된 남녀 전위들의 붉은 사랑은 사랑을 사다리 삼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사랑의 등정(登頂)’⁴⁵⁾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다. 연인과 함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라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의 발전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 붉은 사랑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런데 이적효의 『총동원』(1931)에는 새로운 형태의 부부 전위가 등장해서 주목을 요한다. 젊은 직공이자 고무직공조합 위원장인 진필이는 열렬한 투사이고, 그의 아내인 옥정은 같은 조합의 집행위원으로 일반 여직

44) 유진오(1931),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163면.

45)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3 : 사랑의 등정』, 새물결, 2015, 1293-1300면.

공들 사이에서 신망을 받는 투사이다. 이 들은 경제공황 이후의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합리화를 추진하는 자본가에게 맞서 동맹파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직공들에게는 “임금감하에 반대할 권리”⁴⁶⁾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파업 도중 경관에게 잡혀간 진필이가 ‘지전몽텅이’를 받고 매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함께 계급투쟁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진필이 배신을 한 이후 옥정은 군중 앞에서 진필이 이천여 명의 동지를 팔아먹은 ‘강도’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우리들의 원수’인 진필과 살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 선언 이후 옥정은 진필에 의해 생을 마감한다.

진필 입장에서 옥정과의 사랑은 ‘사랑의 등장’과는 반대로 붉은 사랑이 끝났을 때 투사 부부의 삶이 어떻게 파경에 이르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작품에서 여공 전위가 남성 전위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진필과 옥정 사이에서 역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진필의 배신으로 옥정은 진필이 옥정을 이끌고 옥정이 진필을 지원하던 과거의 투쟁 방식에서 벗어난다. 이제 옥정은 ‘붉은 사랑’을 넘어서서 자신의 동반자였던 진필을 규탄하며 진정한 노동자의 대표로서 거듭난다. 마수미가 강조한 것처럼 정동이 ‘정동되고’ ‘정동하는’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옥정의 변신은 그가 ‘정동되는’ 수동성의 차원에서 ‘정동하는’ 능동성의 차원으로 넘어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⁴⁷⁾ 이처럼 옥정으로 대변되는 여공 전위들은 붉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충만함과 그 사랑이 깨졌을 때 펼쳐지는 비루함 등을 넘어서며 성장하는 존재들이었다.

46) 이적효(1931),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218면.

47) 브라이언 마수미(2019), 앞의 책, 86면.

5.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숙련 여공의 ‘분노’

공장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던 1930년대에 공업 분야에서 기술 진보를 이끈 주된 동력은 기계의 개량을 통한 생산기술의 발전이었다. 공장제 공업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직종과 기술을 가진 집단들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관리 하에서 작업하는 것이었다. 또 인간과 기계가 한 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노동을 기계의 리듬과 운동에 맞춰야 했다. 기계화된 공업에서 요구하는 규칙적인 노동은 여공들에게 정확성, 정밀성, 규칙성 등을 강조하였다.⁴⁸⁾

여기에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와 산업에서의 기술주의가 결합하여 공장 안에서 기술을 지닌 자와 기술을 지니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후자보다는 전자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현실에서든 공장소설에서든 기술을 지닌 자는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기술을 지닌 자들은 기술을 지니지 못한 자들보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해 공격성을 담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분노와 관련해 공장소설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정동들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분노’ 정동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이다. 『여직공』에서는 공장 감독에게 강간을 당한 후 옥순이가 느끼는 수치심이, 『충동원』에서는 옥정의 죽음 후 통곡하는 직공들의 슬픔이, 김남천의 『문예구락부』에서는 창가를 만들어 불렀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해고당한 원찬이의 억울함이, 『인간문제』에서는 선비의 죽음을 목도한 첫째의 사랑이 결말 부분에서 분노로 변한다.⁴⁹⁾ 공장소설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노가 계

48) 안연선,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7-29, 89-90면.

49)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급투쟁의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창성 양말공장의 직공들이 등장하는 『문예구락부』에는 창가를 직접 지어서 부르기 좋아하는 원찬이 등장한다. 유행가도 마음대로 고쳐서 부르고 기계 소리보다 크게 노래를 부르는 원찬을 직공들은 좋아하지만, 공장 감독은 가사가 상스럽고 일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가 창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 원찬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자 감독은 원찬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원찬뿐 아니라 전체 직공들이 분노에 싸여서 파업을 준비한다.

(원찬이는 : 인용자 삽입) 처음에는 얼굴에 모닥불을 켜는 듯하였다. 그 다음엔 가슴에 몽클한 주먹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그것이 가라앉으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힐 듯하였다. (중략) 이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니 분함과 어찌할 줄 모르는 억울한 마음에 가라앉았던 그의 가슴은 갑자기 끓어올랐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은 물차관같이 뒤섞이고 그의 얼굴은 다시 상혈하는 핏줄을 받아 빨갛게 상기한다.⁵⁰⁾

위의 인용문은 해고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느끼던 원찬의 정동이 공장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가 흘러나오자 분노로 바뀌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정동이 신체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처음에 원찬은 모닥불을 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다가 가슴에서 무엇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노래를 들은 후에는 분함과 억울함

Vol.55, 한국현대문학회, 2018.8, 102면.

이경림은 『인간문제』에서 사랑과 분노가 벌이는 대결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작가가 “사랑을 살해라고 분노에 지배권을 넘기는 장면”이라고 분석한다. 선비의 죽음 앞에서 첫째의 사랑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로 인해 첫째는 투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 분석은 공장소설 중 상당수의 작품 결말이 분노와 투쟁으로 점철되는 것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50) 김남천(1934), 앞의 글.; 안승현 편(1995c), 앞의 책, 101-102면.

이 뒤섞여 끓어오르면서 다시 얼굴이 빨갱게 변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정동이 이행 중에 있음과 특정 현상과 마주쳤을 때 그 강도가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분노 정동은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정동들의 전환태이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공장에 들어온 초기에 미숙련 소녀공들이 느꼈던 수치심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억압하던 대상의 부정성을 깨닫고 분노로 변한다. 그래서 분노 정동은 공장소설 속에서 기술을 쌓으며 신체적 역량을 강화한 숙련 여공들의 전유물처럼 등장한다. 구체적인 모습은 이복명의 『여공』과 윤기정의 『양회굴뚝』(1930), 이적효의 『총동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공』에는 N화학공장 XX계에 입사하여 청부제로 작업하는 여공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루 팔십 가마스를 청부로 결복”하였으나 점점 숙련공이 됨에 따라 가마스 수가 늘어서 “지금은 하루에 일백삼십 가마스를 결복”⁵¹⁾한다. 하루 할당량이 ‘팔십’에서 ‘일백삼십’으로 늘었다는 것은 노동의 양이 거의 160% 증가했음과 숙련공 2명이 미숙련공 3명보다 생산량이 많음을 뜻한다. 그래서 공장 측은 생산량은 많고 불량률은 낮은 숙련 여공들이 파업을 주도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작품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창작된 『양회굴뚝』이다. 이 작품에서는 동아제사공장의 사장이 여공들의 노동 시간은 두 시간을 늘리고 일급의 사분의 일을 깎는다고 하자 여공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장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편안히 잠잘 자리를 주고 하루 몇 시간씩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도 다달이 돈을 모아 시골집에 보내”게 해주는 우리 공장이 “낙원”⁵²⁾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복지의 외피를 쓴 이 제도들은 여공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51) 이복명(1933), 앞의 글.; 안승현 편(1995c), 위의 책, 48면.

52) 윤기정, 『양회굴뚝』, 『조선지광』 91호, 1930.6.; 안승현 편(1995b), 앞의 책, 90면.

그래서 시간이 흘러 미숙련 여공들이 기술을 익혀 숙련공이 되면, 이들은 더 이상 공장주나 감독관의 폭력 앞에 침묵하는 수동적 주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장 안의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노동과 상품, 그리고 이윤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자본주의의 폭압성에 대해서도 눈 뜨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 동료들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대 투쟁 역시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동아제사공장의 여공들은 노동 “시간은 한 시간을 늘려도 안 되고 샅전은 한 푼”도 내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그러자 공장 측은 여공들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 기숙사에 사는 여공들은 남겨두고 집에서 다니는 여공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장의 속셈을 알고 있는 숙련 여공들은 이런 처사에 동요하기보다는 분노하며 단결하여 투쟁에서 승리한다. 이 작품에서 유난히 여공들의 힘이 무섭고 크게 표출된 이유는 파업에 참여한 인원 “삼백 명 중에 이백오십 명 이상이 숙련공인 데는 회사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⁵³⁾기 때문이다.

사실 식민 자본주의 속에서 ‘숙련(skill)’은 남성들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1930년대 조선의 공업 인력 비율을 확인해 보면 중공업 분야에서는 남성들이, 경공업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이 이분법 속에서 숙련이라는 말은 중공업 관련 일을 하는 남성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⁵⁴⁾ 하지만 방직이나 제사, 고무공업처럼 경공업 분야만을 떼어서 살펴보면 숙련이 여공들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경공업의 세계 안에서 여공들은 숙련공일 수 있었고 숙련 속에 담긴 힘으로 인해 공장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다.

정리하면 공장 안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여공들은 더 이상 감독의 유혹, 폭력, 만행에 침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을 움아매는 현실

53) 윤기정(1930), 앞의 글; 안승현 편(1995b), 위의 책, 97면.

54) 김미주, 『성별분업 및 임금격차 요인으로서의 숙련』, 『여성학논집』 제6집, 한국여성연구원, 1989, 132면.

에 저항하기 위해 부정적 대상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분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그리고 그 괴리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때 발생한다. 또한 분노는 서로가 서로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만 외화될 수 있다.⁵⁵⁾ 그래서 기술이라는 무기를 지닌 숙련 여공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상대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내뿜으며 부당한 노동 조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6. 기술과 정동이 만드는 혁명의 길

박화성의 『하수도공사』(1932)에는 1930년대에 부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에 참여했던 기술노동자가 십장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기술이 있으면 노동 현장에서 위계를 뛰어넘는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공장이라는 노동의 현장이 소설의 배경으로 특정되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19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에서는 기술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소설 속 여공들은 기술 취득 여부에 따라서 느끼는 주된 정동도 달라졌다.

한설야와 강경애는 『황혼』과 『인간문제』에서 이론을 알고 있는 지식인과 기술을 지닌 노동자의 대비를 그려냈다. 『황혼』의 경재나 『인간문제』의 신철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 청년으로 여공인 주인공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결국에는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삶을 선택한다. 노동자들에게 계급혁명에 대해 알려주지만 지식권력을 지닌 이들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 속에서 기득권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 반면에 『황혼』의 여순과 형철, 『인간문제』의 선비, 간난, 첫째 등은 기술을 지닌 노동자로 살

55)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아가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지식인이 아니라 자신들 같은 노동자에게 있음을 직감한다. 그래서 간난이는 선비가 죽은 후에도 “여공들이 한 몸이 되어 우선 경제적 이익과 인격적 대우를 목표로 항쟁하도록 인도”⁵⁶⁾할 것을 다짐한다.

본고에서 1930년대에 창작된 공장소설들 속의 여공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여공들의 성장 서사를 살피고 그 속에 담긴 긍정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주지하다시피 공장소설은 프로문학 작가들이 주로 창작한 만큼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성공한다.’는 도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전형적 틀 안에서 여공들의 형상은 부분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여공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공장소설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여공들이 성장하는 궤적을 기술과 정동의 상관성을 전제로 한 후, 개인의 서사를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주체를 사유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르게 된 지점은 ‘기술의 습득과 함께 성장한 여공들이 어떻게 혁명의 길로 향해 가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기술을 지닌 숙련 여공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에 임할 경우 투쟁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프로문학의 자장 안에서 있던 공장소설들은 소설 속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설로 현실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기술과 정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공들이 혁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여공들은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에서 공장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노동자, 규율공간인 공장 안에서 근대적 삶을 익히는 근대인, 가난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자/보조자, 주로 섬유나 고무처럼 경공업 영역에서 활약하는 생산자 등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미숙련 소녀공 시기에는 자신을 책망하는 수치심과 상실감의 표현인 슬픔을 주된 정동으로 삼아 생활을 영위

56) 이상경 편(2002), 앞의 책, 360면.

하였다. 하지만 점점 숙련공이 되어 갈수록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랑과 부정한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분노 정동이 강해졌다.

이러한 여공들의 변화를 정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 없을 때는 위축되어 수치심과 슬픔 등 신체의 변용 역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행하던 여공들의 정동이 기술을 익혀서 신체의 변용 역량을 강화한 후에는 점점 기쁨의 정동 쪽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메드의 주장처럼 특정 기술을 둘러싼 기호들이 순환하면서 만들어내는 정동의 이행 속에서 여공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여공들의 정동이 관념·가치·대상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축적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술리반은 정동 자체가 기존의 언어 구조 속에서 담론화되거나 이데올로기적 정치학에 잘 포섭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정동은 “엑스트라-담론적(extra-discursive)이고 엑스트라-텍스트적(extra-textual)”⁵⁷⁾이라고 말한다. 정동은 미결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동을 연구하다 보면 기존의 이론과 관점들이 포착하지 못했던 ‘불확실한 그 무엇’과 대면하게 된다.⁵⁸⁾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확실한 이유가 운동하면서 이행 중이기 때문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이데올로기 뒤에 숨겨진 여공의 정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포착하지 못했던, 계속해서 성장 중인 ‘혁명의 주체로서의 여공’이라는 지점을 발견하는 작업이자,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공’이라는 문체계의 포석을 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57) 박현선, 앞의 글, 69면. (Simon O'sullivan, “The Aesthetics of Affect: Thinking Art Beyond Representation”,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vol 6, no 3 (2001), p.126, 재인용)

58) 박현선, 위의 글, 81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안승현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1 : 일제 강점기(1920-1929)』, 보고서, 1995a.
 _____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2 : 일제 강점기(1930-1932)』, 보고서, 1995b.
 _____ 편, 『한국 노동소설 전집3 : 일제 강점기(1933-1938)』, 보고서, 1995c.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2002.

-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8.1.~12.22.
 김남천,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1934.1.25~2.2.
 박영준, 『소녀공』, 『전선』, 1933.5.
 박화성, 『하수도 공사』, 『동광』 33호, 1932.5.
 송계월,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송영, 『오수향』, 『조선일보』, 1931.1.1.~1.26.
 유진오, 『여직공』, 『조선일보』, 1931.1.2.~22.
 윤기정, 『양회굴뚝』, 『조선지광』 91호, 1930.6.
 이복명, 『여공』, 『신계단』 6호, 1933.3.
 이적효, 『충동원』, 『비판』, 1931.8.
 최정희, 『니나의 이야기』, 『신여성』, 1931.12.
 한설야, 『황혼』, 『조선일보』, 1936.2.5~10.28.
 한인택, 『적은 여공』, 『비판』, 1932.4.
 함대훈, 『호반』, 『조광』, 1937.1.

2. 논문

- 곽건홍, 『1930/40년대 서울지역 공장 여성노동자의 생활』, 『서울과 역사』 No.70, 서울
 역사편찬원, 2007, 51-79면.
 김지영, 『여공의 신체에 새겨진 '화폐'의 초상』, 『현대소설연구』 33권, 현대소설학회,
 2007, 115-134면.
 박미선,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 -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
 속』』, 『도시인문학연구』 8권2호, 도시인문학연구, 2016, 53-78면.
 박산향,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폭력성 고찰』,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Vol.6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142-161면.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Vol.58,

- 민족문학사학회, 2015, 283-312면.
- _____,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8호, 현대소설학회, 2017, 37-68면.
-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Vol.45, 민족문학사학회, 2011, 137-165면.
-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No.22, 역사문제연구소, 2009, 7-31면.
-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어문연구』 Vol.95, 어문연구학회, 2018, 219-240면.
- 안연선,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87.
-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Vol.55, 한국현대문학회, 2018.8, 69-107면.
- 이호연, 『1920·30년대 방직공업 ‘여공’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여성이론』 No.13, 도서출판여이연, 2005, 201-219면.
-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2016.4.
- 최병구,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 『韓民族語文學』 No.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301-330면.
- 최원, 『“정동 이론” 비판: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86, 문화과학, 2016.6., 82-112면.
-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의 이행- 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4집, 이화어문학회, 2018, 43-65면.
- _____, 『일제 파시즘기의 과학자 연애서사와 정동 관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185-206면.
- Ahmed, Sara,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22.2, 2004, pp. 117-139.

3. 단행본

-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4.

-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s*, New York: Routledge, 2004.
- Barbalet, J. M,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 Barracrough, Ruth, 김원·노지승 역,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 Gregg, Melissa 외 1명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에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2015.
- Kollantai, Alexandra, 정호영 역, 『붉은 사랑』, 노사과연, 2013.
- Massumi, Brian,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Nussbaum, Martha,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3 : 사랑의 등장』, 새물결, 2015.
- _____,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 _____, 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 : 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이파리, 2018.
- Wajcman, Judy, 박진희·이현숙 역, 『테크노페미니즘 :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궁리출판, 2009.

4. 기타자료

- 정정훈, 『정동이라는 전장 : 어펙트이론의 계보와 쟁점들』, 서교인문사회연구소실 강의를록 1-6강, 2020.

<Abstract>

The dynamics of technology
and the affect of the factory girl
—Focused on the 1930s factory novel

Hwang, Ji-Young

The article focuses on factory novels created in the 1930s, when women began to take modern jobs in earnest, and also looks at how changing ‘affect’ work as women’s skills build up. In the 1930s, writers of factory novels who detailed the lives of workers presented factory girls as subjects to lead a new era. The authors recreated colonial capitalism,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orkers’ will to fight for a better life, among others. The factory girls’ affects found in the process include shame, sadness, love and anger. The apprentices felt shame when they were treated with violence by capitalists or managers in a strange place called a factory, thinking that everything was themselves wrong. When the apprenticeship period ends, heavy labor and longing for the family back home turn into sadness. Some factory girls are reborn as female vanguard as they fall in love with the male vanguard in the factory, and some are angry at the violent elements that exist in the factory after mastering their skills and becoming skilled factory girls. As the level of proficiency increases, factory girls’ affects change from passive ones to active ones. With the change of affects, the factory girls change the conditions of labor, improve their lives and take a step closer to revolution.

Key words: technology, affect, factory girl, women’s Labor, factory novel,

revolution, implementation

투 고 일 : 2020년 2월 16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